노동의 의미와 그 실천적 과제의 구현

문학에 나타난 노동문제 〈2〉

김 인 환
〈고대교수·국문학〉

위대한 경제학자 피에로 스라파는 생산체계의 외부에서 부과되는 요인이 경제법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잉여분배의 사회적 관계가 먼저 주어져야 잉여생산의 경제법칙이 규명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가격에 독립적인 물량관계로 임금과 이윤의 관계를 해명하려고 하다 실패한 리카도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스라파는 물량관계를 형이상학적 가치로 대체한 사회주의 경제학의 모호성과 이윤율이 주어져야 생산수단의 가치가 결정되고 생산수단의 가치가 결정되어야 이윤율이 결정된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순환논법을 비판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하여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노동의 가치는 증가하고 자본의 가치는 저렴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100년전에 노동자 1인이 방직기 1대로 장비되었는데, 현재는 노동자 1인이 방직기 50대로 장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년전에 방직기 1대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량과 현재 방직기 50대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량이 같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불변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대가가 결정되며, 이윤 역시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자본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고전파의 논리는 결국 이윤율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윤율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순환논법에 빠지고 만다.

스라파에 의하면 사회주의경제학이거나 신고전파 경제학이거나 고전정치경제학의 문제에 대한 회피이며 해답이 아니다. 임금과 이윤의 문제는 순수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권력이 작용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경제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와 독립하여 사회를 지배하는 생산기술적 측면이 있고, 그것은 주로 상품과 상품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임금과 이윤은 집단 상호간의 대립과 타협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본사회에서 이윤은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고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결정되며 임금도 사회전체의 판단에 따라 지불되지 않고 개별기업의 판단에 따라 지불된다. 모든 개별기업은 언제나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다른 기업의 고임금은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자기기업의 이익이 되지만 자기 기업의 고임금은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이윤의 희생을 초래한다.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수준의 상승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유효수요의 증대가 생산의 증가를 유발하여 노동자와 자본가를 다 이롭게 한다.

그러나 개별기업은 결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임금을 인상하는 자발적 誘因은 개별기업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력이 없으면 임금은 결코 상승하지 않는다. 단결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만 임금수준을 개선할수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단체적 요구를 받아하고 전가하는 정도에 따라 이윤수준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업가들은 잘 알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趙世熙의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에는 임금과 이윤의 관계가 권력관계로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목재·섬유·방직 등 경공업과 기계·철강·전자·조선·건설·자동차·석유화학등 중화학공업을 망라한 은강그룹은 나라 전체 세금의 4%를 내고 매상액이 국내시장의 4.2%, 수출이 5.3%를 기록하고 있는 독과점대기업이다. 영수네삼남매는 은강에 와서 처음으로 기계의 힘을 알게 된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놀라운 기술에 매혹되었다. 주조공장·단조공장·열처리공장·판금공장·용접공장·공작기계공장·손다듬질공장·도장공장 등을 차례로 견학하고 나는 나의 조립공장에 섰다. 실린더블록을 만드는 주조공장의 열기와 빛깔이 나를 흥분시켰다.』

그러나 기계의 신비는 곧 사라진다. 공장 안에서 영수와 영희는 기계의 속도와 지시에 맞추어 자기들의 신체를 소모하는 부품이 된다. 기계의 축복이 기계의 저주가 되는 것이다. 기계의 억압을 견뎌내게하는 것이 최저한도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임금이다. 어느 한도 내에서는 노동자 스스로 자기입장을 체념한 가운데 동료임금이나 농촌임금에 비교하여 대개는 최저한도의 생계비를 얻게 되면 만족한다.

이러한 최저한도의 생계비수준조차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사관계는 위기에 직면한다. 네 명의 가족을 둔 도시근로자의 최저 이론 생계비는 「그해에」 팔만 삼천사백팔십원이었는데 영수네 삼남매의 수입총액은 팔만 이백 삼십일원이었고 보험료·국민저축·상조회비·노동조합비·후생비·식비 등을 제하면 육만 이천삼백 오십일원이 남았다. 1970년 11월13일의 「東亞日報」 기사에 의하면 인천米価가 한가마 (80㎏) 당 8천원이었는데, 평화시장의 급여수준은 月삼사천원 정도였다.

이 날의 全泰壹 사건은 영세 가내공장의 특수한 경우라 하겠으나, 대기업의 저임금 수준이 거꾸로 중소기업에 파생되는 현상이 적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생존 보장의 한도에 그칠 것은 분명하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도의 급여와 다소의 교양과 기호에 접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정도에그칠 것이다. 이 정도의 급여로써 노동자의 신체적 損壞와 질병의 발생을 막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측에서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불만을참고 견디거나 직장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양자택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여 있는데, 이것은 경영간부층이 바라는 사정이기도 하다.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경영·경쟁·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독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다. 그 중독 독물이 설혹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었다. 그들은 저희 자유의사에 따라 은강공장에 들어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은강방직의 노사협의회 장면은 이소설집의 핵심이다. 협의란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대화이다. 화제와 관계되는 내용만 말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말하지 않아야 하며, 간결하고 질서있게 표현하고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표현하지 않아야한다. 서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 또는 필요 이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증거있는 발언만 하고 증거없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논점을 이탈하여 노동자측을 야유하고 문제를 회피한다.

노동자측이 임금 문제를 화제로 제의하면 사용자측은 개인사정으로 관심을 돌린다. 『지부장은 무슨 돈으로 그렇게 예쁘게 차려 입었소? 봉투가 그렇게 얇다면 무슨 돈으로며고, 무슨돈으로 옷과 구두를 샀어요?』 경영간부들은 규칙의 준수를 아예 포기하고 협조를 거부한다. 서로에게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선택한 약속을 지키기에 용이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협의의 목적이 있다.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최소한의 진지한 태도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협조는성립될수없다.

밤을 하다가 깜박 졸면 반장이 옷핀으로 찌르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다고 근로자들이 항의하였을 때 사용자들은 『모든 걸 법대로 하자면 은강에서 돌아가는 기계들 대부분을 지금 세워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발언은 회의록에서 삭제되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생계비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도리어 사용자들이 단체행동을 거세해 놓은 법에 의지한다. 사용자들에게 법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해 주는 사회적 장치에 지나지않는다.

임금인상이 당장 상품의 원가를 자극하여 기업의 이윤을 감축한다고 속단하여 경영간부들은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임금인상이 물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그러나 반취업 상태의 저임금 노동자와 잠재실업 상태의 산업예비군이 누적되어 있는 현실에서 임금인상이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윤율의 상승에 기여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

임금인상이 요구되는 경우는 대개 호황기인데, 임금인상을 통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사례는 실제로 허다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현실적 인플레이션이 임금인상에 적극적 원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집적, 재정규모의 확대, 독점가격의 형성과 더불어 성장을 지원하는 특혜금융의 방만에 주도적 원인이 있다 함은 너무나 분명하다.

趙世熙의 소설집은 대기업의 노동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임금과 이윤의 문제를 불평등교환의 문제에서 분리하여 묘사하였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우리는 불평등교환의 문제로 함께 다룰수 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 이상으로 또는 그 가치 이하로 거래될 때에 불평등교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거나 적은 보수를 받을 때에도 불평등교환의 문제가발생한다.

중소기업은 하청계약을 통하여 대기업으로 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 받고 제품을 대기업에 판매한다. 중소기업의 판로는 한두개의 대기업에 한정되어있기때문에 중소기업은 쉽게 상대를 바꿀수 있는 대기업의 결정에 사운을 맡길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최소한도의 이윤에 만족하지 않을수없는것이다. 독과점 대기업에게는 가격을결정할수있는 권력이있다.

대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이전에 만족할 만한 이윤을 포함하는 가격을 결정하여 선언한다. 대기업의 제품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평균임금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평균 이윤율 수준보다 높은 이윤을 얻는다. 이것은 생산력과 기준수준의 발달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불평등교환에 의한 소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적용되는 불평등교환의 현상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선진국의 노동자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상품을 후진국의 실질임금이 선진국의 절반이라면, 그러한 실질임금의 차이에 근거한 상대가격으로 상품이 교환되는 현상은 불평등교환이 아니다. 요컨대 생산성의 격차로 인한 이윤율의 차이는 불평등교환이 아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 교환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교환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오늘날의 다국적기업은 한나라의 독과점 대기업이 아니라, 세계적 독과점 대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온 세계를 불평등교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률적인 국적이 어디에 있건 다국적 기업이 취득한 경제잉여는 선진국으로 흘러간다. 불평등교환이 일반화된 국제사회에서 후진국이 살아남는 길은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수준의억제밖에 없다. 임금도 올리고 수출도 늘이는 길은 후진국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 자신이 잘 알고있다.

후진국은 일종의 자기착취에 의해서만 존속할수 있다. 선진국의 고임금은 낭비적인 대기업가의 선물이 아니라 후진국의 희생위에 얻은 과일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한경제체계의 자기운동이 아니라 한나라가다른나라를 자기의 경제체계에편입하면서 불평등교환의 영역을 넓혀간 과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확장의 영역이 고갈되면 선진국의 이윤율을 유지해주는 불평등교환의 질서도 한계에직면하게된다.

선진국의 대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서 미국의 일부 산업부문이 서독과 일본의 도전으로 위협을 받고있으며 후진국들은 당장의 예속을 어쩔수 없이 용인하면서도 자립노선을 장기전략으로 모색하고있는 것이 20세기 후반기의 상황이다. 조세희는 임금과 이윤의 문제를 사회관계로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중복되어 있는 불평등교환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였다.

문제를 단순화함으로써 조세희는 명쾌한 문체의 효과를 살릴 수 있었다. 조세희의 승리는 언어의 승리이다. 그러나현실을 바르게 묘사하는 데는 단순한 시각보다 복합적인 시각이 더 필요하며, 복합적인 시각은 명쾌한 문체보다 문체의 혼합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조세희의 작품에 대한 문학적 평가와 무관하다. 우리의 느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품의 세부를 거의다 무시하고, 소설집의 골격을 형성하는 생각의 테두리만 검토하였기 때문이다.

趙世熙의 작품이외에도 洪盛原의 『흔들리는 땅』, 黃晳暎의 『客地』와 같이, 노동문제를 다룬 우수한 작품들이 70년대에 많이 나왔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문체와 구성의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노동자라고 하여 늘 어둡고 괴로우란 법은 없다. 비극적 분위기에 매달리지 말고, 풍자적, 해학적, 反語的 문체를 과감하게 시도해 보아야 한다. 든든한 믿음과, 너그러운 웃음은 투쟁의 필수조건이다.

심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삶에 있어서의 노동의 의미를 깊이 탐색해야 한다. 노동이란 자연을 내면화하고, 정신을 자연화하는 과정이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구조를 형성해주는 토대이기도 하다. 현상적인 묘사를 넘어서 노동의 철학적 해석에까지 이르러 작품에 깊이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이란 결국 어떠한 비극도 파괴할수 없는 인간의 신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노동문제의 형상화는 패를 갈라 편드는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에 도달하려는 작업이다. 禪門의 탁월한 수도자들은 억압과 착취에 가득찬 저 중세의 혼돈 속에서 탁월한 긍정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긍정은 폭력적 만인전쟁의 승락과는 다르다. 병과 죄와 폭력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을 근원적으로 묶어주는 선의 연대가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同意의 영역은 어떠한 것일까? 바로 그 공동선의 영역에 들어가 [illegible]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문학적 투쟁이다. 노동문제도 그러한 방향에서 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문제형상화, 인간근원에 도달하는작업

「共同善」영역서 是非가리는 것이 문학적 투쟁

노사 마찰, 사회권력 작용하는 인간 간의 관계

원 고 모 집

5월의 푸르름은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묻혀진 아픔과 함께 더욱 깊어 갑니다.

목련 축전도 막을 내린 이때, 조금은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어야 하리라.

자신을 되돌아 보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글을 모읍니다. 어떠한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수필 : 20매 내외(200자 원고지 이하동일)
▲시 : 10매 내외
▲시론 : 22매 내외
▲소설 : 80매 내외
▲논문 : 30매~40매 내외

대 학 주 보 사

歲時鋒

"그해 오월의 뜨거운 노래는 묻을 수 없다"

시간처럼 모든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있을까. 제아무리 피륜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마련이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고하는지 모를 일이다. 긴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면 사뭇 아름답게까지 느껴 진다. 그러나 죄를 범해 놓고 댓가를 치루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 스럽고, 오히려 더욱 초조하다. 숨이 막힐지경이다. 댓가를 치루어야 비로소 후련하다. 인과 응보는 항상 시간속에 내재해있는것이다. 언젠가는 뿌린대로 거두는법. 시간은 여기에서 모든것을 해결해주는 약인것이다. 이는 개인뿐아니라 사회전체에 걸쳐 통용된다.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욕이 있다. 꼭 씻어야만 하는데 쉽사리 씻겨지지도 않고 씻을수도 없는 일이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기억들이 있는 것이다. 식민지 속국으로서의 역사의 단절, 동족끼리의 피비린내나는 혈전, 수많은 음도가 내재된 정변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생생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더욱 지워지지 않는 것은 정권탈취를 위해 온 국민을 불안과 시련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시전체를 공포의 場으로 만들어 버린 80년 5월의 기억이다. 박정권이 무너진지 6개월만에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한민족의 의지가 무참히 박살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땅에 어둡고 괴로운 억압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음은 역사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총칼앞에 무참하게 죽어간 민중들의 피맺힌 한을 외면하고 정권을 찬탈한후 체제를 굳혀온지 5년이란 세월이 흘러왔다. 민중과 격리된 정권의 정통성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광주시민의 원한을 어떻게 면할수 있겠는가. 어떠한 변명하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권력에 대해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는가.

해마다 4월이 오면 4·19 영령들의 민주를 절규한 피맺힌 함성이 들릴 것이며 해마다 5월이 되면 5·17영령들의 피맺힌 모습이 보일 것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코 시간이 마냥 흐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 알아야 할 것이다. 마땅히 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것이 곧 역사의 심판인 것이다.

해마다 5월 17일이 되면 이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은 광주항쟁의 이름으로 독재정권의 비정통성과 정당성을 규탄해 왔다.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최루탄과, 가택연금, 연행으로 억압되어졌고 금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실로 강압정치의 끝없는폭력이 아닐수 없다. 정의는 언제나 고통받는 모양이다. 금년 5.17은 지나갔다.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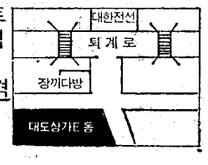
우리는 5.17을 우상화해 그 진실된 의미를 왜곡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주화를 외치다 비명에 간 민초들의 영령앞에 우리의 행동을 반성해 보는 겸허한 자세도 필요할때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슬기롭게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화는 민중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노력으로서만 가능하며 다시는 그해 5월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다. 역사는 도도히흐른다. 그러나 역사속에 담긴 그 뜨거운 노래는 결코 묻을 수가 없는 것이다.

34년을 오직 남성복만을 고집하였읍니다.

30% 할인제를 대도상가가 최초로 본 광고를 지참하신 대학생 에게만 실시합니다. 34년의 축적된 기술진들이 정성들여 만들어내는 남성의 팻션, 여러분께 신뢰와 만족을 함께 드릴것 입니다.

취급품목 신사복, 콤비, 케쥬얼, 잠바 바지, T셔츠등 남성 팻션 일절

본 광고를 지참하신 학생은 대도상가 전매장에서 위의 품목을 정가에서 30%디스카운트하여드리며 메리야스, 양말, 지갑, 벨트 넥타이, 등도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품질합격표시 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 대도상가E동
주소 : 중구 남창동 49번지 TEL. 753-4897

영어공부는 한국에서

미국대학의 Language School이 언어장벽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시간과 돈의 엄청난낭비일 뿐입니다.

「유학영어의 모든것」은 알짜 수강생 15명 내외만 골라 하루에 3시간 한주에 3일간(월. 수. 금/화. 목. 토 7:00~10:00P.M) 씩 명성있는 현직교수 두분이 지도하는 종합코스입니다.

■항목별, 단계별 학습으로 TOEFL 600점대를 보장합니다.
■유학시에 필요한 속독, 다독 능력을 습득시킵니다.
■영어논문(paper) 작성요령을 터득케해 줍니다.
수강대상 : 미국유학을 계획하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분
접수기간 : 매월 마지막주

대학영어의 모든것 SINEW CAMPUS ENGLISH LANGUAGE PROGRAM
TEL. 585-4883/5087
방배전철역 사거리

Interview후에 접수합니다.

인간 심형래
품바개그로 모아들인 선물을 바로 당신께 드려요!
매일밤 마이하우스——
4층에서는 추첨권에 의해 추첨된 손님에게 고급 칼라 TV를 선물하며,
5층에서는 명동 입구에서 나누어 드리는 선물티켓을 갖고 오시는 분에게 깜찍한 선물을 드립니다.
명동 Tel 777-6861~2
MY HOUSE
명동 사보이호텔 후문앞

서점가에 돌풍 불어닥쳐! 발간즉시 重版결정!
죽어있는 感性帶를 건드리는 충격적 心像스케치!
姜一星 옴니버스散文集
풀
첫사랑. 이제 그 사랑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언덕. 오히려 문지르는 자국마다 더욱더 생생히 살아오르는 그 시절의 꿈.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장편 옴니버스 에세이입니다. 한 권의 책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득차 있읍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기쁜 그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 글과 글 사이에 녹아 있읍니다.
에세이지만 시보다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짜여지고 소설보다도 튼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스토리 속에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십시오.
●상큼한 文章 아름다운 영혼을찾는그대에게!
■크라운版/300페이지/값 3,000원
多讀 ☎ 782-3681 783-1541~5

西洋古代史概論
M. Cheilik 著/高大 大學院 古代史硏究室 譯/池東植 責任監修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5세기로마제국의 붕괴까지를 설명한 서양역사의 요약서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흐름과 주요한 사건들을 명확하게 요약·해설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고고학과 고전문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들도 철저히 다루고 있으며 게다가 독자의 이해와 비평을 돕기 위해 샘플 시험문제, 중요한 사건들의 연대기, 그리고 지도와 참고도서목록표까지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서양고대사 교재로는 가장 적합한 책이다.
■크라운版/값 4,600원

西洋中世史概論
W. Kirchner 著/高大 大學院 中世史硏究室 譯/池東植 責任監修
중세 유럽의 역사가 요약된 이 책에는 서기 375년부터 1492년까지의 정치, 군사,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주요 사건과 그 흐름들이 담겨있다. 각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각 시대의 뛰어난 인물들을 간략히 고찰,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와 제도의 문제점과 진보과정을 분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시켰다.
중세 역사의 각 시대는 중세 생활의 모든 주요 측면에서 다음 시대와 연결시켰다. 따라서 이 책은 수많은 자료를 사용하여 뽑은 지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으며 서양 중세사를 연구하려는 교수와 학생에게 더없이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크라운版/값 4,600원

로마帝國은 왜 멸망했는가
W. 월뱅크 外著/池東植 譯
고대 서양세계를 주도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원인을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종교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예리하게 연구·분석하면서 벌이는 世紀的 碩學들의 論爭을 총망라한 책이다.
몽테스키외, 윌뱅크, E. 헌팅턴등 18명 석학들의 명 논문이 담긴 이책은 로마제국의 멸망원인뿐만 아니라 그것이 던져주는 오늘날의 時事論的 의미와 교훈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양사 教材로는 물론, 역사의 흐름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教養書로도 더없이 적합한 책이다.
■크라운版/값 4,600원

대학문화사 ☎150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45-14 동북빌딩301호 ☎782-3681/783-1541~5